

# 난민 캠프의 공간성과 정치성:

베를린 템펠호프 폐공항을 중심으로

최은주\*

## 【요약】

본고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탐탁지 않은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Undesirables’에 대해 의문을 품고, 권력을 담지한 언어, 공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급격한 증가 추세인 난민과 난민 캠프에 초점을 두고, ‘Undesirables’의 함의를 독일 베를린Berlin의 지금은 폐쇄된 템펠호프 공항Flughafen Tempelhof의 공간 재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역사의 팔림세스트Palimpsest로 볼릴 만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온 템펠호프는 영구한 장소로서의 안정성 대신 임시로 머무는 이동, 통과와 장소의 의미화 된다. 과거 강제 노동자 수용소, 집중 수용소를 거쳐 베를린의 공항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템펠호프는 폐쇄된 이후 주립공원으로 사용되는 중이었으며 2015년 시리아 난민의 유입으로 난민 캠프로 사용되었다. 난민에게는 캠프가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의 공간이므로 난민이 머문 격납고는 집의 기능을 하였다. 난민들에게는 집이었지만 베를린 지정의 역사 유적지이기 때문에 템펠호프의 내부 공간은 자유로운 변형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는 아이러니한 장소였다. 난민 캠프가 강제 노동자 수용소와는 다른 맥락 속의 거쳐, 보호소로 의미화 된다 해도 정치적 의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언어·공간 속에서는 여전히 수용소이며, 난민은 수용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템펠호프는 유산遺産이 아닌 강제 노동자 수용소, 집중 수용소 등과 같은 여러 얼굴의 정체성을 벗을 수 없으며, 따라서 난민 캠프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만큼 다른 어떤 역사적 장소와도 비교가 어려운 복잡한 상징성과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 템펠호프 공항, 팔림세스트, 난민 캠프, 공간성

---

\* 건국대학교

## I. 들어가면서

본고는 현재 급격한 증가 추세의 난민과 난민 수용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불명확하게 번역되는 ‘Undesirables’의 함의를 독일 베를린Berlin의 지금은 폐쇄된 템펠호프 공항Flughafen Tempelhof의 공간 재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템펠호프는 역사의 팔립세스트palimpsest<sup>1)</sup>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13세기에 수녀원의 거처였으며, 18세기에는 ‘군인 왕’으로 불린 프러시아 프레더릭 윌리엄 1세Frederick William I가 연병장으로 사용하였다. 19세기 유명한 세 황제 러시아의 윌리엄 1세Emperor William I, 알렉산더 2세Czar Alexander II,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Emperor Franz Joseph의 행진 이후 2백 년이 지난 1907년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가 시행한 에어쇼로 덕분에 템펠호프는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중요한 장소로 부상하였다. 이후 프러시아의 군사 훈련소였다가 1925년 베를린의 첫 공항이 되었다. 그리고 나치가 정권을 잡은 1933년에 그 부지에서 폐기되었던 프러시아의 군사 교도소가 게슈타포 교도소로, 이어 1935년에 집중 수용소로 사용되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와 건축가이자 정치가였던 알베르트 슈페어Albert Speer는 제 3제국The Third Reich의 정치적 중요성을 건축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그것의 진정한 얼굴은 필드 가장자리에 있는 콜롬비아 집중 수용소Konzentrationslager Columbia에 의해 드러났다.<sup>2)</sup> 1936년 말 수감자들 대부분이 오라니엔부르크Oranienburg에 새로 지은 작센하우젠 집중 수용소Konzentrationslager Sachsenhausen로 이송되었고, 콜롬비아

1) 팔립세스트는 다시 쓰고 다시 쓴 양피지로, 종이 발명 이전에 문서를 기록 보관한 양피나 소피, 염소피이다. 가격이 비싼 이유 때문에 썼던 활자를 끊어내거나 찢어낸 후에 다른 문서를 위해 재사용하곤 하였다. 팔립세스트는 라틴어 ‘팔립세스투스palimpsestus’에서 유래하였으며, 고대 그리스어 ‘다시 끊어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위키피디아 영어판”, <https://en.wikipedia.org/wiki/Palimpsest>.

2) Hess-Lüttich (2016), p. 23.

집중 수용소는 폐쇄된 후 바로 철거되었다.

템펠호프의 이차륙장 북서쪽 모서리에 반관적으로semiofficially, 다시 말해 비공식적<sup>3)</sup>으로 마련된 수용소에 정적政敵, 유대인, 동성애자가 억류되었다.<sup>4)</sup> 당시 ‘탐탁지 않은 인물들’의 의미에 더 가까울법한 ‘Undesirables’로 분류되었던 정적과 유대인, 동성애자야말로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칭한 법적 - 사회적 정체성 등 ‘추상적으로 재코드화된’<sup>5)</sup> 여러 삶의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관적’이라 함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1995)에서 아감벤이 정확하게 지적하였듯이, 형법의 특수한 영역 중의 하나가 교도소였던 반면, 군법이나 계엄령 같은 것을 통해서만 생겨난 것이 강제 수용소였다.<sup>6)</sup> 다시 말해 어떤 현행 제도나 현행법 속에 법적 기반을 둘 필요가 없는 ‘어느 날 이미 거기에 있었던’<sup>7)</sup> 상시적인 현실과 같은 것이었다.

‘Undesirables’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의라는 점은 이와 같은 수용소 발생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강제수용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정상적인 법질서가 아니라 군법, 또는 계엄령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예방적 구금’이라고 하는 범주에 ‘Undesirables,’ 즉 바람직하지 않으며 탐탁지 않은 인물들을 위협인물로 놓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사회적인 규범의 요구나 평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개인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정의한 요양소, 정신병원, 교도소와는 또 다른 공간적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Undesirables’의 범주는 특히 유대인에 집중되어있었다. 나치 독일의 믿음, 즉 유대인이 마르크스주의자와 불세비즘을 전개하였으며, 교활한 자본주의 힘까지 더해 지구상의 민족

3) 이것은 규약의 부재에서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이 통제하는 영토 밖에서 작동하는 국가 권력의 변형태이며, 제국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역 (2008), p. 19.

4) Curry (2014), p. 48.

5)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양창렬 역 (2009), p. 17.

6)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2008), p. 316.

7)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2008), p. 320.

들을 정복하고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믿음은 1935년 뉘른베르크법(Nürnberger Gesetze)을 통과시키면서 진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수용소는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정치적 공간으로서 ‘새로운 생명정치적 노모스(nomos)’<sup>8)</sup>이다.

템펠호프 공항은 2008년에 폐쇄되었다. 낡기도 했으며, 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규모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도 있었다. 이후 템펠호프 녹지에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공항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베를린의 가장 큰 주립공원으로 변형되었으며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의 대거 유입에 따라 난민 캠프가 세워지면서 모든 위협이 템펠호프로 집중되자 예정되었던 사적, 공적 국제 행사가 취소되었다.<sup>9)</sup> 흥미로운 것은 나치의 전체주의적 망상이 드리워진 이 장소가 폐쇄되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한 가운데에서 역사 기념물로 법적 보호가 된다는 점이다. 사용 불가능한 컨베이어조차 여기서는 관람용 기념물인 것이다. 현지 가이드에 의하면, 수하물 컨베이어는 아직 작동하므로 행사용 회전 뷔페 차림 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더 이상 공항의 역할을 하지 않는 공항의 잔여물은 기념물이라기보다 공허감을 불러일으킨다. 집중 수용소와 강제 노동자 수용소로서의 비극적 역사와 현존하지 않는 공항으로서의 공허와 망각, 상실의 경험을 건물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허와 망각, 상실의 경험을 딛고 템펠호프가 독일 최대의 난민 센터로 활용되면서, 베를린 역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붙이기 힘든 장소인 ‘refugee camp’가 ‘난민 수용소’가 아닌 ‘난민 캠프’, ‘난민 쉼터shelter’, ‘난민 거처’, ‘난민 센터’ 등으로 더 낫게, 또는 너무 나쁘지 않게 순화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의적인 ‘camp’의 번역어 야영지, (군대의) 주둔지, 막사, 수용소에서 알 수 있듯이

8)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양창렬 역 (2009), p. 55.

9) Parsloe (2017), p. 35.

‘수용’의 의미는 지워지지 않는다. 난민 인구의 급증에 따라 환대의 문제가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으나 환대와는 정반대의 사태가 세계 각국에서 일제히 시작된’<sup>10)</sup> 측면이 이를 사실적으로 반영하다. 난민 캠프가 여전히 그 지역사회와 소통할 플랫폼이 부족한, 폐쇄와 배제의 방식으로 구성되어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베를린의 템펠호프 또한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범주화 하였던 정치적 공간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수용소’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Undesirables’는 계속해서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의 ‘인권’, 그리고 ‘환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해법의 난민 공간이 상상되어야 할 것이다.

## II. 다시 쓰고 다시 쓴 텍스트로서의 장소

템펠호프는 나치 독일의 강제 노동자 수용소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수천 명의 남성과 여성이 활주로 덮개의 그림자에서 전쟁 기계를 가동하는데 동원되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수백만 명의 독일 남성이 전선으로 떠나자 독일 내 노동력은 수입해야 할 만큼 턱없이 부족하였다. 독일은 정복하고 차지한 국가들에서 좋은 일자리 약속을 통해 노동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8백만 명에서 1천만 명의 강제 노동자들을 수입하였다.<sup>11)</sup> 1944년까지 4백만 베를린 인구의 1/8이 강제 노동자였으며, 전쟁 후반에 유대인을 포함한 ‘Undesirables’로 분류된 사람들은 다른 집중 수용소나 몰살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이들을 수송한 기차들은 돌아오는 길에 폴란드와 소련의 남성들과 여성들을 싣고 왔다. 이로써, 템펠호프의 막사에는 거의 2천명에 달하는

10) 우카이 사토시, 신지영 역 (2010), p. 20.

11) Curry (2014), p. 46.

폴란드, 프랑스, 그리고 소련에서 온 강제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전쟁 기간 강제 노동자들은 템펠호프의 격납고에서 스투카 급강하 폭격기Stuka dive-bombers를 포함한 독일 항공기 제조업체 비저플루크Wesertflug의 전투기를 만들고 수리하였다.<sup>12)</sup>

현재 템펠호프 공항은 역사유적지로 내부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셀프 가이드 방식이 아닌 전문 가이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두 시간 동안 옥상부터 지하 벙커까지 제한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매일 오후 한 시 삼십분에 관람객들과 시작되는 건물 내의 투어 프로그램은 폐쇄된 템펠호프 공항을 또 하나의 장소로 생성한다. 그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거쳐 가는, 또는 통과해가는 장소’로 마르크 오제Marc Auge의 ‘비장소Non-places’라는 수식어가 가능한 베를린 지정 관광명소이다. 방문한 여행자들이 두 시간동안 스스로를 관객으로서 느끼는 공간인 것이다. 오제는 그의 『비장소Non-places』(1995)에서 여행자의 공간을 비장소의 원형으로 놓는다.<sup>13)</sup> 물론 베를린의 여타 장소와는 다르게 교도소 같기도 하고 거대한 흉물 같기도 한, 전혀 단장되지 않은 폐공항이라는 점이 남다른 역사의 건축물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통과와 역할을 하는 비장소는 정체성과 관계, 역사적인 것으로 장소를 규정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재조합이나 재구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숙지해온 정보가 건물을 통해 체험되는 순간, 그리고 그 내러티브가 건물의 구체적인 개별 공간으로 마디마디 분배되면서 맞춰질 때 건물은 역사적인 것으로 재현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실제로 건물 속에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건물의 의미화 과정이 일어나며 내러티브가 완성된다. 다하우 강제 수용소 추모지KZ-Gedenkstätte Dachau와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 추모지 Gedenkstätte Sachsenhausen, 그리고 쿠담Ku’damm이라고 불리는 베를린의 변화가 쿠르퓌르스텐담Kurfürstendamm의 카이저 빌헬름 교회

12) Curry (2014), p. 46.

13) 마르크 오제, 이상길·이윤영 역 (2017), p. 45.

Kaiser-Wilhelm-Gedächtnis-Kirche와 같은 건축물이 과거의 스토리를 재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친다.<sup>14)</sup> 반전과 평화, 화해에 호소하는 건물들이 포함된 관광 코스를 통해 여행객은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도 과거의 상처를 공유한다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역사는 공간 소비자들에 의해 구현된다. 역사가 마치 관계와 영향의 추상적인 공간에서 서로 작용하는 이름, 날짜, 관념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역사는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삶과 피로 된 개인들의 문제이다.<sup>15)</sup> 이렇게 보자면, 텍스트로서의 장소 템펠호프의 팔립세스트적인 기능은 에마뉘엘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가 말했던 ‘책임의 실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타인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sup>16)</sup>는 것인데, 이때 전혀 다른 접근으로 건축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현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로부터 나온 건물과 마주한다면, “공포심을 조장하는 포퓰리즘populism이 어떻게 국가와 개인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 보다는 느끼게 한다.”<sup>17)</sup> 나치 건축의 확고한 남성성, 완강한 자재, 그리고 완전무균의 기하학적 구조는 엄숙함을 감정적으로 체험하게 하며, 건물의 존재 자체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강력한 교훈 reminder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서 있는 것은 지배와 폭정이 강력한 반 이민 정책의 불가분의 측면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

14)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베를린 시민들의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일 첫 번째 황제 빌헬름 1세를 기리는 교회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두 번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15) Netz (2004), p. 228.

16) Peacock (2017), “Relics of the far right”,  
<https://overland.org.au/2017/04/relics-of-the-far-right>.

17) Peacock (2017), “Relics of the far right”,  
<https://overland.org.au/2017/04/relics-of-the-far-right>.

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 국가를 에워쌀 것이라는 점을 잇기 어렵게 한다.

역사 기념물들은 과거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억할지 관람객들이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공간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과거의 순간순간을 포획할 수는 없다. 다만, 상징적으로 재현할 뿐이다.<sup>18)</sup> 건물에 발을 딛고 서서 바라보는 것은 실제의 문이며, 창문, 벽처럼 세부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꿈꾸는 방식이며, 다른 아닌 장소가 하나의 팔립세스트의 텍스트인 곳에서 개인은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들과 연결되면서 부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조립하여 마치 ‘거기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다.<sup>19)</sup> 이런 건물들을 통해 방문객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현장에 담긴 과거 국가 사회주의를 비판적으로 참여해보게 되므로 역사적 장소로서의 건물은 다층적인 층위에서 교육적으로 접근되어 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요소들 중에서 선별한 것들에 대해 맹목적으로 숭배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장의 국가사회주의의 층위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상품화”<sup>20)</sup>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에, 가이드가 설명하는 템펠호프의 역사는 제한적이다. 구글 검색창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보다 협소한 나치 시대 강제 노동자 수용과 현재 난민 수용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포함될 뿐이다. 필자는 질문을 통해서 처음 3,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던 템펠호프에 현재 1,000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가이드는 팔립세스트적인 장소의 역사를 낱알이 밝히지 않는다. 템펠호프의 역사 전반을 이야기하기 위해 관람객을 인솔하여 나치 시대의 지하 병커를 보여주지만 또한 공항의 수속장소와 수하물 컨베이어도 동일한 비중으로 보여준다.

18) Peacock (2017), “Relics of the far right”,  
<https://overland.org.au/2017/04/relics-of-the-far-right>.

19) Certeau (1984), p. 109.

20) Copley (2017), p. 701.



가이드의 이야기에서 빠져있는 내러티브는 고고학자와 인문학자들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회자되고 추가된다. 더 넓은 푸코적 해석을 적용하여 수용소가 이미 생명정치의 관리 형태, ‘공간의’ 정치 기술로 이해되며, 그렇게 해서 ‘벌거벗은 생명’의 생산과 고립이 연구되는 것이다.<sup>21)</sup> 아감벤에 따르면, 수용소란 애초에 ‘난민을 통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유럽에 세워졌고, 강제 수용소 - 집중 수용소 - 몰살 수용소로 계승되었으며, 뉘른베르크법에 따라 유대인과 집시가 몰살 수용소로 보내졌다.<sup>22)</sup> ‘Undesirables’를 분류하면서 ‘예외적 공간’이라는 수용소의 ‘역설적인 지위’가 생성되었다면, 역사적 수치는 템펠호프를 폐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도시재생의 주요사업에 이 공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도시 자체를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템펠호프의 이착륙장은 베를린의 가장 큰 주립공원이 되었으며, 일상 도시생활에서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난민 캠프를 세우는 일은 공공 주택과 공간을 둘러싸고 현저한 갈등을 일으켰다. 또한 템펠호프 자체가 히틀러에 의해 전 세계의 수도를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곳이고, 건축을 통한 인종적 우위와 세계 지배의 주장을 결정화 하려고 한 곳인 만큼 이미 정치화되고 논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난민 거처로의 전환에는 장벽이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sup>23)</sup> 뿐만 아니라 템펠호프 자체가 주거용으로 고안된 건물이 아니므로, 항공기를 보관하는 격납고에서 난민들이 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이 격납고에서 나치 시대 수감되었던 노동자들이 항공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격납고의 주거환경이 보통 수준 이하의 생활조건이라는 점은 수많은 국내, 국제 매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sup>2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캠프는 설치가 되었고,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에서 템펠호프는

21) Minca (2015), p. 77.

22) 조르조 아감벤, 김상훈·양창렬 역 (2009), p. 32.

23) Parsloe (2017), p. 36.

24) Hess-Lüttich (2016), p. 23.

‘역사의 팔립세스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나치 정권의 템펠호프가 공항과 강제 노동자의 수용시설, 혹은 집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주립공원 일부를 난민 거처로 활용하게 되면서, 고정된 장소성을 벗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난민 캠프로 사용하는 템펠호프의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물리적 제한을 가하는 규제를 시행되는 아이러니가 공존하였다. 베를린 당국은 역사적 유산의 정체성 보존이라는 역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즉 역사적 상징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공간 제한이라는 정책 때문에 난민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난민 캠프가 강제 노동자 수용소와는 다른 맥락 속의 거처, 보호소로 의미화 된다 해도 정치적 의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언어·공간 속에서는 여전히 수용소이며, 난민은 수용 대상인 것이다. 난민을 수용·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이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걱정스러운 요소, 즉 위기의 상징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난민을 받아들인 난민 쉼터의 운영 주체 측에서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공간 안의 포함은 물론 보호의 차원을 개념화 한다. 포함과 보호의 차원은 ‘탐탁지 않은’ 난민들을 불화와 갈등으로부터 단속하는 방식과 교묘하게 결합시키면서 난민을 독특한 위치, 즉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에 위치 지으면서 제한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템펠호프는 강제 노동자 수용소, 집중 수용소 등과 같은 여러 얼굴의 정체성을 지울 수가 없으며, 난민 캠프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 그만큼 다른 어떤 역사적 장소와도 비교가 어려운 복잡한 상징성과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성을 담지한 공간에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자들은 보호관찰의 그림자가 아니라 거처, 집, 가정을 추구한다. 난민 수용이라는 국가적 거대 과제의 통계 속에 가려져있을지라도 안정적인 집이 허용되기 전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며 삶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난민 개인인 것이다. 장소가 어떠한지라도 삶은 지속되고 생활이 이어져야 하므로 난민들로서는 본래적인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의 개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들은 그들을 수용한 주인국가가 제공한 공간을 최소한이라도 자기 식으로 장식하고 변형하기를 욕망하였다. 템펠호프 격납고의 획일적으로 배열된 깨끗한 흰 벽과 생활용 칸막이 너머에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임시 집’을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자 공간의 모양을 고쳤다. 칸막이 안의 침대와 벤치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담요나 시트를 이용해 작은 공간의 구획을 나누었다. 또한 침대 주변을 시트로 둘러싸고 잠깐 동안이지만 사생활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흑백의 난민 캠프 골목에 약간의 색깔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문에 밝은 시트를 걸쳐두거나 판자로 된 칸막이에 아이들의 그림에서부터 종교적인 상징, 국기, 그리고 고향의 이름을 각기 다른 모국어로 적은 벽화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벽은 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좌절, 희망, 영속적인 문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갔다.



[그림-1] 템펠호프 공항은 소련의 봉쇄로부터 서 베를린을 구한 공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독일의 가장 큰 난민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출처: 필자가 방문하여 촬영 (2018)”

[그림-2]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중 하나는 25제곱미터 유닛으로 만든 임시 칸막이와 6개의 이층 침상으로 된 12개 침대가 있다.

“출처: Alison Smale, "Tempelhof Airport, Once a Lifeline for Berliners, Reprises Role for Refugees", *The New York Times*, 2016.02.10. 「사진 - 고든 웰터스 Gordon Welters」”

그러나 2016년 4월 낙서의 관행이 템펠호프 난민 캠프 내에서 금지되었다. 논쟁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난민 캠프 측은 내부갈등과 외부 언론 추문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포는 정당했다. 이로써 나치 정권 시기 대형 전쟁 기계를 만들기 위해 세워졌던 격납고를 집으로 삼았던 강제 노동자들에 이어 현재의 난민들의 집 꾸미기 꿈은 무산되었다. 이것은 과거 강제 노동자들의 삶이 노예의 삶과 다름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템펠호프가 ‘집home’이었다는 사실과 맞닿는다. 강제 노동자들은 엄연히 ‘도시 삶의 부분’<sup>25)</sup>을 차지하였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당시 강제 노동자들의 생활도구(술병 주둥이, 포크, 나이프, 숟가락, 자물쇠, 열쇠, 직접 만든 목주 등)를 통해, 템펠호프가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수천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국적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 트렁크를 열고 닫는 자물쇠, 열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템펠호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속적인 폭력의 위협에 놓이는 것이었으며, 강제 노동자들이 건설한 지하 폭탄 피신처와 지상 콘크리트 벙커는 베를린 시민용이었을 뿐 정작 그들은 포탄 파편이 있는 도랑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전쟁 뒤 평범한 독일인들이 나치 정권이 저지른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베를린 사람들이 템펠호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sup>26)</sup>. 이렇듯 베를린이라는 특수한 도시 공간을 둘러싸고 다양한 담론과 서사가 증폭되기에 이른다. 서론에 언급했듯이, 폐쇄·재생·개방을 반복하면서, 템펠호프는 나치 독일의 공향으로는 더 이상 현존하지 않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얼굴이다. ‘누군가를’ 또는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자 ‘기억을 영속화시키는’<sup>27)</sup>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념물인 것이다.

---

25) Curry (2014), p. 47.

26) Curry (2014), p. 47.

27) 마르크 오제, 이상길·이윤영 역 (2017), p. 78.

### III. 난민 캠프에 대한 건축적 사유

템펠호프가 난민들에게 ‘온화한, 좋은’ 집을 제공했다면, 템펠호프의 얼룩진 수치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종결 짓는 동화를 탄생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수용소의 성질은 템펠호프에도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난민에게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 집’일 수밖에 없었다. 난민을 수용하는 주인국과 손님으로 온 난민은 똑같이 영토, 집을 욕망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난민 쉼터의 상징이 ‘임시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변형에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해 보인다. 지그문트 바우만 Zigmunt Bauman은 난민 캠프를 놓고 “영원한 일시적 수용소”<sup>28)</sup>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다. 그렇다 해도 자유의 측면과 나란히 현 시대의 집의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까지도 미국 내 행동연구에서 집은 ‘온화한, 좋은benign’ 용어로 묘사되었으며, 긴장과 갈등이 가득한 세계에서 위안의 원천인 ‘피난처’<sup>29)</sup>였다. 장소감sense of place, 장소성placeness과 관련하여 장소에 뿌리내린다는 것은 사람의 안전감과 관련된다. 장소감이나 공동체는 “어떤 규범적 가치 또는 공공적 선을 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sup>30)</sup> 존재론적으로 안정적인 장소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있다고 생각했던 북미와 유럽의 중산층은 여러 문화 속에서 집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긍정적인 집의 경험과 넓은 외부 환경의 부정적인 경험 사이의 대조는 집의 의미를 훨씬 강력하고 깊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여러 이론가들이 집의 개념을 지지했기 때문”<sup>31)</sup>에 그 의미는 더 강화되었다.

28) 지그문트 바우만, 한상석 역 (2010), p. 59.

29) Sibley (1995), p. 93.

30) 최병두 (2002), p. 258.

31) Sibley (1995), p. 93.

이와 같이 안정에 가치를 둔 ‘온화하고 좋은’ 가족주의적 집과 민족 국가적 개념의 강화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집, 국가, 국경의 근본적 원리를 무시하면서 불안정성에 맞서는 투쟁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집은 이상화된 것과 반대로 가부장제의 폭력성 속에 비밀의 온상이기 쉬우며, 민족국가 또한 미래의 대규모 인구이동의 물결로부터 온전한 집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불안정성은 이미 국경 안팎의 불가피한 조건인 것이다. 건축의 폐쇄성이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건축은 안과 밖을 구별해내는 물질적인 한 방법이다. 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줄어들거나 확장될 수 있다.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확장이든, 외부로부터 내부의 침략이든 그 경계를 선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토 확장은 권력투쟁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제는 권력을 넘어서는 절박함, 공포, 생의 의지에 의해 넘어뜨려야 할 가치로 대두된다. 집의 주인과 손님의 위치는 침투하고 동화된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요새가 될 수 없는 이유이며, 마침내 2015년에는 ‘이주의 여름summer of migration’을 맞이하였다.<sup>32)</sup> 길고긴 국경은 횡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계가 생겨났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횡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욱 국경을 확고히 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은 어떻게든 뚫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에 대해 주인이 불안해하는 것은 ‘땅에 새겨진 확실성이 그만큼 상대적’<sup>33)</sup>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식민정책에 의해 손님이 주인이 되는 상황, 주인이 손님이 되는 상황이 보여준 것처럼 영토를 둘러싼 사유 사이에는 세계적 수준의 긴장감이 흐른다. 이제는 토지문서의 유효성이 아니라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을 통해 휩쓸리고 횡단된다. 결국에는 바깥, 추방된 것, 억압된 것, 혹은 배제된 것을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담론화가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32) El-Kayed, Hamann (2018), pp. 136-137.

33) 마르크 오제, 이상길·이윤영 역 (2017), p. 143.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들 또한 스스로의 태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의 집과 국가를 떠나, 혹은 도망쳐 다른 국가에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집, 거처를 구한다. 그것도 절박하게 말이다.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가치관, 집의 개념을 과거에 남겨놓고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영토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다른 영토에서 떠나온 영토에서처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추구가 당연한 것 같지만 급격한 세계 인구가이동의 물결을 주도하는 사람들로써 개념화된 의미의 온화하고 안정적인 소속, 영토, 집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국경을 허물고 민족 국가의 폐쇄성을 해체시킨 주체이다. 해체된 만큼 집은 소유, 소속과는 다른 맥락의 재전유reappropriation를 필요로 한다.

공간의 고정된 가치를 다른 가치와 다른 의미로 전회轉回하는 행위가 손님에서 새로운 어휘<sup>34)</sup>로 거듭날 난민의 지향성일 텐데, 난민 스스로 비시민으로 탈바꿈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와 같은 측면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을 둘러싸고 묘사되는 어휘들 속에서 난민은 해결 불가능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난민을 둘러싼 수많은 어휘와 수식어가 그런 해결 불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우만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난민과 난민 캠프를 둘러싼 어휘들을 생산해내는 동시에 수집해왔다. 난민은 ‘형언할 수 없는 존재ineffable’이고,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말하는 육화된 ‘비확정적 존재undecidables’이

34) 토마스 함마Tomas Hammar는 『민주주의와 민족 국가Democracy and the Nation State』(1990)에서 이를 가리켜 ‘거류민denizens’이라고 칭하였다. ‘이방인’과 ‘타자’의 개념이 각기 시대성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처럼, ‘거류민’은 “특정 국가에 일정 기간 거주해 영주자로서의 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시민적 권리, 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 일부를 누릴 수 있다.”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양창렬 옮김 (2009), p. 34. 반면, 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인터뷰한 훔볼트대학교의 난민 연구자 울리케 함만Dr. Ulrike Hamann은 자신의 논문“Refugees’ Access to Housing and Residency in German Cities: Internal Border Regimes and Their Local Variations”에서 ‘denizens’를 영구 거주하지만 투표권이 없으므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는 다른 국적의 소유자들로 분류하였다.

며, 불가‘촉’의 존재un‘touch’ables이고, 불가‘사의’한 존재in‘think’ables이다.<sup>35)</sup> 한 편, 난민 캠프는 ‘영원한 일시적’<sup>36)</sup> 장소이면서 ‘얼어붙어 버린 일시성frozen transience’으로, 『국경지대Borderlands: Towards an Anthropology of the Cosmopolitan Condition』(2006)의 저자 미셸 아지에르Michel Agier의 말에서 빌린 ‘경계의 문턱에서 표류하는 상황으로 내던져진 것’이다.<sup>37)</sup> 난민은 모여 있으나 ‘공동체는 아닌 집단’으로, ‘어떤 장소에 밀집해 있으나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무리’<sup>38)</sup>이다. 그들은 오늘날 인간의 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든 뿌리들이 잠겨 있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sup>39)</sup>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 언어의 생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간적 전환으로 사유를 옮겨야 한다. ‘흐름의 공간’이라는 묘사를 달리 사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간 혹은 거주가 주체를 구속하거나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포함관계이다. 이것은 건축의 폐쇄성인 동시에 주체성과 의미화이다.

수용소는 공간이되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비장소이다. 수용소는 임시 부지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시기에만 존재하는 장소location로 정의된다. 특히 템펠호프의 건축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항은 ‘분리divisions’와 ‘경계boundaries’가 물질화된 곳이다. 애초부터 통과와 장소였으므로 건물 전체를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한, 건축의 의도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따라서 3천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보호·수용·거처로서의 부적절성은 불가피해 보였다. 다시 말해, 고유한 차원의 집으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했다. 난민 캠프가 정주와 거주에 선행된 통과 장소라 해도 난민 캠프에서 보내는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안정적인 집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난민 캠프는 집이 될 수밖에 없다.

35) 지그문트 바우만, 한상석 역 (2010), pp. 77-78.

36) 지그문트 바우만, 한상석 역 (2010), p. 59.

37) 지그문트 바우만, 한상석 역 (2010), p. 78.

38) 지그문트 바우만, 한상석 역 (2010), p. 79.

39) 지그문트 바우만, 한상석 역 (2010), p. 82.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국가들은 ‘장소에 대한 사유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현재성의 각종 민족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sup>40)</sup> 따라서 난민 캠프는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집중’과 ‘수용’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난민들을 정해진 장소에 수용하여 내부의 외부로서, 포함적 배제로서 만들면서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차이 짓고, 나아가 극심한 불쾌와 거부를 낳으며, 마침내 혐오를 연대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대’는 허위 과장된 선전propaganda에 더 가까우며, 이것은 확립되고 용인된 정확성과 진실성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설득의 기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확실하지 않은 정체성과 고정된 주저지가 없는 유동하는 신체를 지지하려는 욕망이 구현된 곳이 수용소인 것이다. ‘영원한 임시성’이라는 양면성에 의해 표상되는 난민에 대한 생명정치적 대우와 변방 공간으로의 빈번한 감금을 통해 난민 캠프는 “여러 서구 민주주의에서 별거벗은 생명의 생산을 합병 정리된 존재”<sup>41)</sup>로 만들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난민을 표면적으로 포함하면서 내재적으로 배제하는 모순에서 성립된 장소이다. 난민은 제외(배제)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제외(배제) 관계는 금지의 관계이면서 매우 공간적인 관계이다. 캠프 자체가 영구적으로 배제의 공간이 되는 이유이다.

난민이 비열한 타자이기 때문에 이미 온전한 경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는 도전을 받는 순간, 불안이 초래되고 논쟁이 분출’<sup>42)</sup>된다. 다시 말해, 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도전받는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다. 도전받는 순간 경계는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소속 개념이 발생시킨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국적을 내세우면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자와의 경계로 부적격자, 모자란 자, 어긋나는 자”<sup>43)</sup>와 같은 ‘Undesirables’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있다.

40) 마르크 오제, 이상길·이윤영 역 (2017), p. 136.

41) Minca (2015), p. 79.

42) Eriksen (2016), p. 60.

‘Undesirables’를 수용하는 난민 캠프는 따라서 구체적인 통제의 기술과 공간 생산을 의도한 것이다. 20세기가 ‘수용소의 시대the age of the camp’로 지칭되는 한편, 21세기 또한 수용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아감벤, 폴 길로이Paul Gilroy 등이 지적했듯이 공간의 정치적 기술로서 실제 도처에서 수용소가 발견되고 있다. 수용소는 식민주의, 우생학, 생명정치 사이에 놓인 교차로의 물질화이며, 20세기 민족주의, 파시즘, 자본주의로 구성된 복잡한 정치-산업 시스템이 생산한 종합공간으로 신지리학의 전략적, 상징적 허브이다. 이것이 길로이가 자본주의의 생명정치에 관하여 수용소의 기원에서 ‘지리학적·인류학적 존재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되돌아볼 것’<sup>44)</sup>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지적 또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상업적 세계화가 노마디즘의 가장 나쁜 점(불안정성)과 정착성의 가장 나쁜 점(폐쇄성) 위에 세워진 반면, 지구의 지속적인 민주주의는 일종의 발견과도 같은 뿌리 내리기를 경험하고, 휴식과도 같은 여행을 경험하며, 노마드로서 정착하고, 정착민으로서 이동하고, 움직이지 않고도 떠돌아다니고, 움직이면서도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sup>45)</sup>

즉 유동적이고 모호한 상태, 영구히 진행되는 상태, 지속적 자기위반 상태에 놓인 것들만이 살 수 있는 영토에 우리가 놓여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뿌리내릴 수 있다면 역동적으로 그러할 뿐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미셸 마페솔리Michal Maffesoli의 주장과 상통한다.<sup>46)</sup> 뿌리내림의 상태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자기와 거리를 두는’ 행위를 통해, 그리고 바깥세상의 노변에서 여행하는 행위를 통해 매일 새롭게 규정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수용소 사고camp thinking’가 가능한 것은 부시 정권이

43) Eriksen (2016), p. 62.

44) Minca (2015), p. 78.

45) 자크 아탈리, 이효숙 역 (2007), p. 493.

46) Minca (2015), p. 76.

9·11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각성으로 도입한 세계적 규모의 새로운 배제의 지리학과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론과 철학,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지대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사회이론가들이 캠프의 공간성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하게 되었다.<sup>47)</sup> ‘수용소를 사고한다’ 함은 불확실한 상태로 묘사되거나 중심이 비어있는 a void at its core 예외적인 영토 공간의 컨테이너로 묘사되는 ‘수용소’가 인간 물질 human material, 즉 ‘생물학적 실체 biological substance’로 채워져 있는 지속적인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림-3] 현재 1천명의 시리아 난민이 레이더 탑 내부에 거주하고 있다.  
“출처: 필자가 방문하여 촬영(2018)”



[그림-4] 템펠호프의 격납고와 에이프린(격납고 앞의 광장) 사이에 설치되었던 캠프로, 현재 컨테이너는 비어있다.  
“출처: 필자가 방문하여 촬영(2018)”

그러나 이때의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수용소가 ‘흐름의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은 고정, 안정의 의미와 달리 비장소를 끌어내는 부정적인 의미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나 건축의 특징인 ‘계산 가능한 것’, ‘틀지어

47) Minca (2015), p. 76.

진 것’, ‘포함된 것’과는 역발상적으로 ‘흐름’, ‘지속’, ‘진동’, ‘축소’, ‘팽창’, ‘포함되지 않는 바깥’과 같이 ‘되기의 연속성’에 건축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그로스 Elizabeth Grosz가 거론한 바 있는 공간 혹은 거주자 주체를 구속하거나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포함관계’에만 머문다면, 주인의 입장이 ‘소유’에, 손님의 입장이 ‘소속’이라는 이원화된 사고만 가능할 뿐이다. 또한 주관성의 미학적 또는 실용적 표현으로서의 공간이나 주거지라는 ‘표현의 관계’만이 남게 된다.<sup>48)</sup> 이와 같은 사고에서는 난민이 전통적인 ‘Undesirables’와 마찬가지로 ‘탐탁지 않은 사람들’로 머물 수 있을 뿐이며 환대를 통해 어떤 장소에 들어갔다 해도 들어간 사실 자체 외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관념이 자리한다. 하룻밤 묵을 수는 있다 해도 순전히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언제든지 주인의 땅을 망치고 위협할 존재로 부각되면 궁극에는 외국인혐오증,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결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 구조를 깨는 데에 난민을 ‘인권’ 혹은 ‘환대’의 개념으로 놓는 대신 건축적, 철학적, 주체적 재인식이 요청된다. “난민 개념을 인권 개념으로부터 과감하게 해방시켜야 한다”<sup>49)</sup>는 아감벤의 주장은 건축학적인 개념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 개념은 달리 말해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의 ‘인정 없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는가?’<sup>50)</sup>라는 질문과도 무관하지 않다. 인정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인간 주체의 생존을 결정짓는 규범들과 동일시하는 권력 관계에 따르자면, 난민은 용인 가능한 자가 되기 위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 여부에 따라 ‘생존’이 결정된다. 따라서 인권, 환대에 대한 윤리적 필요성만 가지고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증폭될 난민 인구를 수용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현대사회가 강박적일만큼 정착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목적 성격의 효과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sup>51)</sup> 인류의 기원인 노마드가 소유로서의 집, 영토, 국경을 보유하고

48) 엘리자베스 그로스, 김재영 외 역 (2012), p. 91.

49) 조르조 아감벤, 김상은·양창렬 역 (2009), p. 33.

50)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김웅산 역 (2016), p. 131.

있었다면, 이제 전지구적 사회의 변화, 즉 내전, 환경파괴, 실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도 불안정한 삶이 예고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습이나 행동, 현상이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는 시공간적·상황적 근간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의 ‘이속disembedding’, 또는 이탈, 탈피로 번역되는 용어처럼 의도적으로 불안정성을 일상화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안으로의 포함을 목적으로 한 건축의 지향성과는 다른 일탈적으로 생성된 예외공간으로서의 ‘비장소’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모든 곳에 있다. 불가능의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잠재한 장소의 발현이 헤테로토피아인 것은 공간이 균질적이고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다양한 성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물론이며,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까지’<sup>52)</sup> 하기 때문이다. 환상은 실제 공간을 생성하며 ‘안’이라는 건축적 공간뿐만 아니라 ‘바깥’의 공간을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공항과 그 외 교통 허브, 관광 공간, 국경과 같이 모든 형태와 양상에서 현대적인 예외 공간이 생겨났으나 이들의 공간성은 바로 ‘허문다’는 의미의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공간이 아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적 길이에 의해서 임시적일 뿐이다. 개인이 머무는 시간이 짧을 뿐이지 언제나 다른 개인들이 대신하여 공간을 채운다. 난민 캠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여전히 ‘출신 - 민족 - 영토의 삼위일체에서 설립되는 현대 국가 위기의 물질화를 재현’<sup>53)</sup>하는 것이 난민이라면, 난민 캠프는 인권뿐만 아니라 공간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템펠호프 자체는 과거와 현재의 동시성 안에서 작동하며, 거의 손대지 않는 재생 방식으로 포함관계와 표현의 관계를 고정시키지 않으면서 건축의 혼종적 다양성을 이행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망령이 깃든 유형 같은 건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이 발명될 수 있는 장소, 다시 말해, 평소의 형태에서 벗어난, 거처하는 체계 바깥이 건축학적으로 성립되는

51) 자크 데리다, 남수인 역 (2004), p. 40.

52) 미셸 푸코, 이상길 역 (2015), p. 45.

53) Minca (2015), p. 81.

곳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유,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억누르려 하는 인식구조의 바깥이 선행된다. 그런 인식구조란 템펠호프가 난민을 수용한 사실만을 의미화 할 수 없는, 수용 이후 난민이 주체로서의 삶을 의미화하는 과정에 놓일 수 있도록 ‘되기’의 건축물을 짓는 방법론적 상상이다. 없는 장소를 상상하고 현실화 한 것 중에 하나가 난민 캠프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런 상상은 난민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나란히 요청되는 사항인 것이다. 내부로 배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할 플랫폼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시·영구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이라는 보편적 삶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길어야 수명이 1년인 천막을 보완하여 추위와 더위 등의 기후조건을 견딜 수 있는 3년 이상의 소재로 바꾸고 있는 지역사회와 기업의 협력 프로젝트<sup>54)</sup>는 난민이 거주하는 어떤 장소든 집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인식은 또한 난민 발생 증가와 난민의 유입에 따라 영토의 지표는 물론 정체성의 지표 또한 지워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 장소의 개념, 즉 끊임없이 정체성과 관계를 결합하여 안정성으로 규정되는 역사적인 장소의 개념과는 달리 집이야말로 그와 같은 정체성과 관련되지 않고 역사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없는 전복된 공간이자 비 상징적인 장소로 재 개념화 될 필요가 있다.

54) 주로 북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난민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의 경우, 여러 재단과 기업, 교육기관, 이케아 파운데이션(KEA Foundation, 유엔 난민 기구가 합작으로 세운 사회적 기업이 전문적으로 쉼터 디자인을 하고 있다. “bettershelter”, <http://www.bettershelter.org>.

## IV. 나가면서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역사박물관Deutsches Historisches Museum의 관람 첫 순서는 지도이다. 시대별로 영토 확장 혹은 축소를 통해 경계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고대로부터 순차적으로 영상에 담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옆 벽면의 해설은 ‘유럽에서의 경계(국경)’에서 경계의 개념과 기원을 고대, 중세, 초기 근대, 현대의 시작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슬라브Slavic 언어인 ‘granica’에서 빌려온 ‘Grenze’는 말 그대로 경계border이다. 그리고 Grenze는 점차 독일어 ‘Mark’, 즉 ‘march’로 대신하게 된다. 다시 말해, ‘행진한다’는 뜻의 Mark는 제국의 경계 영역을 의미했다. 그런데 경계에는 정치적 경계 외에 흥미롭게도 문화적, 그리고 문명과 관련된 언어, 민족뿐만 아니라 지리학적, 사회적, 교파적confessional으로도 경계가 나뉘었다. 그런 경계들은 국가적, 영토적 경계의 직선적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중첩되는 경계였다. 고대에만 해도 인간은 강과 산맥과 같은 자연적인 경계에다가 국경 요새를 세웠다. 주교와 결탁한 교회 지방의 시스템 또한 로마 시기부터 세습되었다. 그러나 켈트족이나 독일계, 슬라브 민족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계(국경)를 다루었다. 경험적 공간experiential spaces이라는 것에 의해 결정된 경계였다. 이런 실증적인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경계는 시기에 따라 자연적이기도 하였고, 인간이 만들기도 하였고, 그 속에서도 유행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최근 난민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유럽을 향한 이동The Flow Towards Europe<sup>55)</sup>이라는 오픈 소스 인터랙션open source interaction 지도는 핀란드 Finland의 데이터 전문가가 개발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유럽 국가에 도착한

55) “유럽을 향한 이동The Flow Towards Europe”,  
<https://www.lucify.com/the-flow-towards-europe>.

난민의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난민 발생 국가로부터 난민 이동의 흐름flow이 나타난다. 유엔 난민 기구UN Refugee Agency의 통계를 근거로 하여 난민 25명씩을 하나의 픽셀로 나타내어 그 경로를 보여주는데, 국경은 횡단되며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된다. 난민은 직접 마주한 개별 인간이 아니라 25명으로 설정된 작은 표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 명 옆에 실시간으로 반영, 표시되는 유입 난민 수의 증가 속도는 이 낯선 존재를 무지하고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고 외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대화 한다. 이와 같은 시각적 효과는 난민 문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공포를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정치가들로 하여금 국경을 강화할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한 방법을 찾게끔 조장한다. 따라서 수용소의 이야기가 ‘유럽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sup>56)</sup>일 정도로 난민을 수용한지 50년이 된 독일에서조차 자국 태생만을 인정하는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폐쇄적 움직임이 극우정당을 통해 선동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독일의 통합·이주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비판하면서도 텀펠호프에 아직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격납고가 난민이 지내기에 형편없으며 베를린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텀펠호프의 난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57)</sup> 텀펠호프의 내러티브가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연구자, 저널, 신문에 의해 발표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파헤쳐지는 텀펠호프는 ‘되기becoming’의 연속성에

---

56) Minca (2015), p. 76.

57) 필자가 2018년 7월에 베를린을 방문하여 7월 31일과 8월 7일에 각 각 만난 훔볼트 대학교의 BIM 연구소Berliner Institut für empirische Integrations-und Migrationsforschung의 디렉터 데이미언 감로쉬Damian Ghamlouche와 올리케 함만은 텀펠호프의 격납고에 아직까지 난민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필자에게 반문하였다 .



놓여있는 공간이므로 ‘베를린이 결코 실재being하지 못하고 영원히 되어가는 중’<sup>58)</sup>인 도시로 비난받게 한다. 실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어떤 식으로도 실현되지 못하는 무결정의 것임을 말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이런 템펠호프의 ‘되기’야말로 건축의 고유한 특징인 ‘틀지어진 것’과 ‘포함된 것’, ‘닫힌 것’을 넘어서면서, 독일의 “수치의 유산”<sup>59)</sup>과 연결하여 다시금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의 역사 다시 쓰기이며, 수용소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수용소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을 돕는다. 여러 지적에서처럼 수용소는 증가하는 난민의 발생 수에서 짐작 가능하듯이 확산되고 있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생명 권력과 폭력 사이의 관계와 맞물릴 수 있는 문제이며, ‘생명정치와 관련된 공간적 배제제도’<sup>60)</sup>와도 맞물리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건축적 방향은 다른 누구보다 정치인들의 성찰 속에서 결정되었다. 다시 말해, 건축은 건축가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관심 대상으로 선택, 주목되었다.<sup>61)</sup> 이것은 19세기 부르주아들이 학술 지리학에 주권권력과 관련된 공간화를 안정적이고 확신 있는 것으로 재현해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sup>62)</sup> 템펠호프야말로 인종적 우위와 세계 지배의 주장을 결정화할 장소로 고안된 전체주의적 망상을 구현한 장소였다. 바로 그 전체주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마침내 생태적이면서 인도적인 미래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적으로 협상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를 갖게 되었다.<sup>63)</sup> 그리고 독일의 가장 큰 난민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포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즉시 그 땅에 기입되는 민족국

58) Hess-Lüttich (2016), p. 29.

59) Peacock (2017), “Relics of the far right”,  
<https://overland.org.au/2017/04/relics-of-the-far-right>.

60) Minca (2007), p. 77.

61) 미셸 푸코, 이상길 역 (2015) p. 64.

62) Minca (2007), p. 86.

63) Hess-Lüttich (2016), pp. 25-26.

가가 아니라 지구적인 맥락의 민주주의로 사회적 통합이 상상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으로의 포함만을 지향하는 건축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집의 본래적 안정성을 투과시키는 ‘흐름’의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8(0): 253-278.
- 마르크 오제 (1995), 이상길 · 이윤영 역 (2017), 『비장소: 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파주: 아카넷.
- 미셸 푸코 (1994), 이상길 역 (2015),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 엘리자베스 그로스 (2001), 김재영 외 역 (2012), 『건축, 그 바깥에서: 잠재 공간과 현실 공간에 대한 에세이』, 서울: 그린비.
- 우카이 사토시 (2008), 신지영 역 (2010), 『주권의 너머에서』, 서울: 그린비.
- 자크 데리다 (1997), 남수인 역 (2004),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 자크 아탈리 (2003), 이효숙 역 (2005),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서울: 웅진씽크빅.
- 지그문트 바우만 (2007), 한상석 역 (2010), 『모두스 비벤디 -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서울: 후마니타스.
- 조르조 아감벤 (1995),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출판사.
- 조르조 아감벤 (1996), 김상운, 양창렬 역 (2009), 『목적 없는 수단: 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 서울: 난장.
-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 (2007), 주혜연 역 (2008),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서울: 웅진씽크빅.
- 주디스 버틀러, 아테나 아타나시오우 (2013), 김응산 역 (2016),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서울: 자음과 모음.
- Certeau, Michel de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 by Steven Rendall,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pley, Clare (2017), “Curating Tempelhof: negotiating the multiple histories of Berlin’s ‘symbol of freedom’”, *Urban History*, 44(4): 698-717.
- Curry, Andrew (2014), “Telling a different story”, *Archaeology*, July/August: 44-48.
- El-Kayed Nihad and Ulrike Hamann (2018), “Refugees’ Access to Housing and Residency in German Cities: Internal Border Regimes and Their Local Variations”, *Social Inclusion*, 6(1): 135-146.

- Eriksen, Thomas Hylland (2016), "The Destablized Boundary", in Lluís A.C. Blanco, (ed.), *After Belonging: The Objects, Spaces, and Territories of the Ways We Stay in Transit*, pp. 60-64, Zurich: Lars Müller Publishers.
- Hess-Lüttich, Ernest W.B. (2016), "Urban discourse — city space, city language, city planning: Eco-semiotic approaches to the discourse analysis of urban renewal", *Sign System Studies*, 44(1/2): 12-33.
- Minca, Claudio (2007), "Agamben's Geographies of Modernity", *Political Geography*, 26: 78-97.
- Minca, Claudio (2015), "Geographies of the Camp", *Political Geography*, 49: 74-83.
- Netz, Reviel (2004), *Barbed Wire: An Ecology of Modernity*,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 Parsloe, Toby (2017), "Appropriating buildings to house refugees: Berlin Tempelhof", *Forced Migration Review*, 55: 35-36.
- Sibley, David (1995), *Geograph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London: Routledge.
- Smale, Alison (2016), "Berlin Journal: Tempelhof Airport, Once a Lifeline for Berliners, Reprises Role for Refugees", *New York Times*.
- Starzmann, Maria Theresia (2014), "Excavating Tempelhof airfield: Objects of Memory and the Politics of Absence", *Rethinking History*, 18(2): 211-229.
- Alison Smale, "Tempelhof Airport, Once a Lifeline for Berliners, Reprises Role for Refugees", *The New York Times*, 2016.02.10. (사진-고든 웰터스Gordon Welters)
- "betershelter", <http://www.betershelter.org>. (검색일: 2018.08.20.)
- Peacock, Bella (2017), "Relics of the far right", <https://overland.org.au/2017/04/relics-of-the-far-right>. (검색일: 2018.08.09.)
- "유럽을 향한 이동The Flow Towards Europe", <https://www.lucify.com/the-flow-towards-europe>. (검색일: 2018.08.20.)
- "위키피디아 영어판", <https://en.wikipedia.org/wiki/Palimpsest>. (검색일: 2018.08.20.)

##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language and space created by power, questioning the notion of “undesirables” to those who categorize anyone who opposes them or doesn’t fit with their view of what’s acceptable in anticipation of a future increase in the population.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discuss the textual reproduction of space at a particular time inherent in the meaning of the word, from the Third Reich to the present day at the Tempelhof site in Berlin, Germany. The Tempelhof has been used for many purposes, from an airport to a concentration camp and a labor camp during the Third Reich. Since the closure of the airport, it has been used in part as a refugee camp since 2015. Thus, the Tempelhof has been criticized as the only continuous “becoming” never “being.” For this reason, the former airport has been called the “Palimpsest of History.” A palimpsest, reused parchment with faint original writings still visible underneath the new text. However, because it is a place of becoming, the Tempelhof can represent the possibility of surpassing the architectural objective, namely inclusion into the interior. In this regard, the Tempelhof has complex symbols and narratives that are difficult to compare with any other historical site.

**【Keywords】** Undesirables, Tempelhof Airport, Palimpsest, refugee camps, spatiality

논문 투고일: 2018.09.18

심사 완료일: 2018.10.18

게재 확정일: 2018.10.18